지역 소식통

고창군,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서비스 연장운영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농기센터)에서는 추수철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영농철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농한기 동안 주중에만 운영되던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9월부터 토요일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기센터에서는 본소(고창읍), 서부권(해리), 남부권(대산), 북부권(흥덕)에 4개 사업소 모두 토요일 비상근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비상근무에 농기계 수리요원 및 담당직원 19명이 투입된다.

고창군 농기센터는 현재 임대 농기계 98종 1073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신청은 2주 전부터 가능하다. 권역별로 전화(본소/고창읍, ☎560-8847, 서부권/해리, ☎560-8860, 남부권/대산, ☎560-8557, 북부권/흥덕, ☎560-8537)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방제단 운영 수목병해충방제 총력

부안군은 가로수 병해충 집중예찰 및 방제단을 운영, 도심 가로수 및 공원에 수목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온다습한 기후가 계속되면서 생활권 가로수 등에 미국흰불나방 유충 개체수 증가로 부안군에서는 지난 8월 초부터 주기적으로 수목병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흑명나방이 가로화단 및 공원에 발생하여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흑명나방은 나비목 포충나방과에 속하는 해충으로 주로 벼에 피해를 주나, 최근 개체수 증가로 공원 및 도심 가로화단 등에 발생하여 인근 농작물 피해 및 도심 경관저해 등 우려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긴급방제에 나섰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수목해충의 증가에 따라 가로수 등 병해충방제 위한 집중예찰 및 긴급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3회 진채선의 날' 열려

최초의 여성명창 진채선 추모 · 재조명… 고창군 심원면 고향마을서 기념행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명창인 진채선을 추모하고 재조명하는 기념행사가 고향마을에서 열렸다.

1일 오전 진채선선양회(회장 권민정)와 진채선기념사업회(회장 김선백)의 공동주관으로 고창군 심원면 사등마을에서 '제3회 진채선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국악인들과 심원면 주민 500여명이 함께했다.

추모시, 추모제를 시작으로 진채선 선양에 공이 큰 최혜진 판소리학회장, 김한옥 사등마을 이장, 김범경 심원면 주민자치위원장, 이난초 명창이 표창패를 수상했다. 라남근 해리면장과 황정민 진채선선양회초대회장이 감사패 받았다.

추모공연은 비조채선의 한양 화도, 채수정 명창의 적벽가 중 적벽화전, 고창농악 판굿으로 마무리 되었다.

1847년 고창에서 태어난 진채선은 17살 때 판소리 6바탕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1812~1884년)의 발탁으로 소리를 시작해 조선 최초 여성 명창이 됐다.

고종 1867년 경회루 낙성연에서 흥선대원군의 초청으로 성조가와 방아타령을 불러 청중을 놀라게 했고 남성 못지않게 성음이 웅장하고 기량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창극사'에서는 진채선을 동편제 명창으로 분류했으며 장기는 '춘향가'와 '심청가'였고 특히 '춘향가'중 '기생점고 대목'을 잘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얼마전 신재효판소리공원에서는 진채선을 주인공으로 한 국악뮤지컬 '이팝 소리꽃'이 매회 전석 매진에 가까운 인기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고창=김영식 기자

단풍미인쇼핑몰 '한가위 기획전'… 최대 50% 할인

정읍시, 10만원 이상 구매고객 1만 포인트 환급 등 고객감사 이벤트 병행

정읍시 농특산물 온라인 마켓 단풍미인쇼핑몰이 추석을 맞아 9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가위 기획전을 운영한다.

고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우, 쌍화차, 귀리 등을 비롯해 각종 가공식품과 발효식품 등 80여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1만 포인트 지급과 신규 회원가입 고객에게는 3000포인트를 지급한다. 100번째 고객에게는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풍미인쇼핑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URL을

전송하고 설문에 응해준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해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상품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 홈페이지(www.danpoongmall.kr)에서 구매가능하며, 모든 상품은 우체국 안전 배송 서비스로 무료 배송된다.

단, 택배물량 증가와 주문 폭주 등으로 택배지연과 조기품절이 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가위를 맞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단풍미인쇼핑몰을 통해 풍성한 혜택을 받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에겐 안전한 판로를 소비자에겐 최고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성공 운영 MOU 체결

부안군과 3개 대학(전주대, 비전대, 예수대)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을 위해 지난달 31일 군청에서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교가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인적·물적자원 지원 등 부안민의 평생학습을 조성하는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부안캠퍼스 운영 업무협약식에 참가한 3개 대학교 총장단은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부안군과 함께 동참하게 돼 뜻깊다"며 "지역민들에게 우수 교수진을 활용한 양질의 교육 제공과 지역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평생교육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구축과 주민의 삶과 학습 통합을 위한 일에 지역의 우수대학과 함께 할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부안캠퍼스 운영 업무협약 체결로 부안군과 지역대학의 협업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120억원 지원

부안군은 사료 및 자재 값 상승으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사료 구매 자금 융자액 총 120억 원을 지원하였다. 부안군은 앞서 상반기(4월) 사료 구매 자금 96억 원을 150농가에 지원했으며, 이번 9월에도추가로 25억 원을 50농가에 지원하였다.

사료 구매자금은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한우, 돼지뿐만 아니라 닭, 오리 등 가금류를 포함한 사육농가이다.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 중 약 35~5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가의 경영비와 소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한우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군 축산과장은 "사료 가격 상승과 함께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다."라며, "배정된 융자금 지원이 해당 농가에 신속하게 대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립박물관, 정읍 역사 · 문화 담긴 유물 공개구입

정읍시가 '정읍시립박물관'의 전시·연구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정읍시립박물관은 지역 공립박물관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전시?연구 자료 활용, 지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매년 정읍과 관련된 유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번 구입 대상은 정읍 서화실 신설과 관련해 석지 채용신, 창암 이삼만, 몽연 김진민, 동초 김석곤 등 정읍과 인연이 있는 서화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작품과 정읍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역사~근현대 자료다.

단, 구입 대상 유물은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하며, 도굴·도난품 등의 불법유물이나 출처가 소유경위가 불분명한 자료는 매도신청을 할 수 없다.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문화재청 허가) 등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과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유물은 서류심사 및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립박물관(063-539-6792)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을 잘 보존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유물을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유물 구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추진상황 설명회

고창군이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을 대상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군민과의 지속적인 공감과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선8기 공약사업을 담당하는 각 실무부서에서 전반적인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단의 점검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공약이행 평가단은 지난 4월 공개모집 등을 통해 30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매년 공약 이행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약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 후 군민참여 토론회와 비전 선포식을 거쳐 6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과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부터, 전국 최초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8기 군수와 임기를 같이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고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군정의 동반자다"며 "평가단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풍성한 공약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